

2024년 상반기

기관투자자 투자트렌드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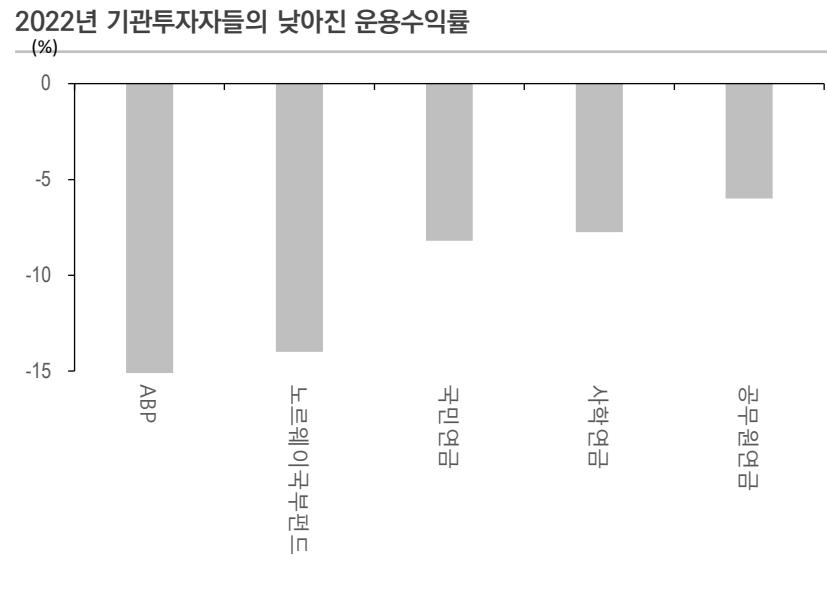
1. 대체자산 투자처로 떠오른 사모대출	03
2. 중국의 부진과 인도의 부상	09
3. 해외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12
4. AI와 IT, ESG	15
5. 기관투자자 자산 배분과 투자 이슈	18
Appendix	28

금리에 짓눌린 2022년 vs 회복한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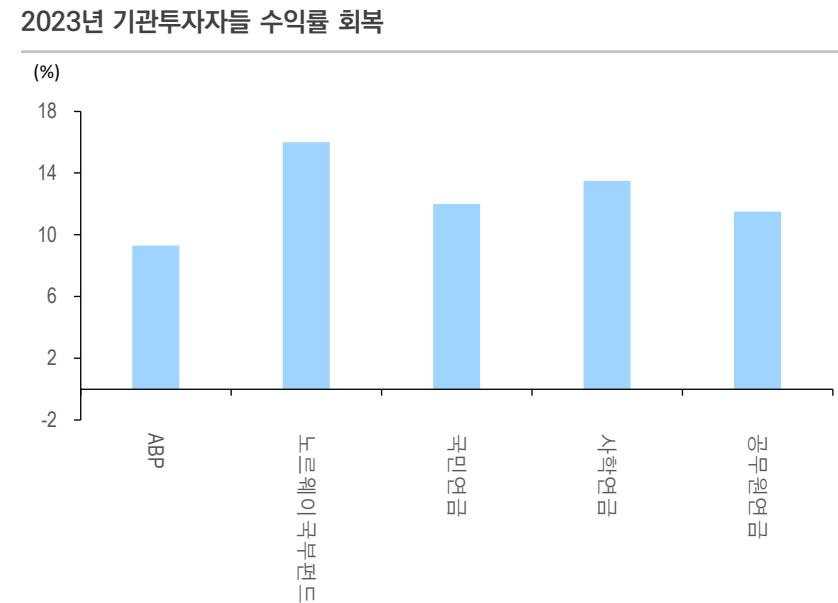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자산의 시장 분위기는 매우 위축

글로벌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2021년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줌. 하지만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부담, 각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음.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대체자산의 기대수익률도 낮아졌음. 특히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럽 지역의 연기금 수익률이 낮아졌음

2023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이에 따라 동반하락하였던 주식 자산과 채권자산이 회복세를 보였고, 대부분의 기관투자자의 수익률이 회복세를 보임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잠정치

유동성 축소로 대체자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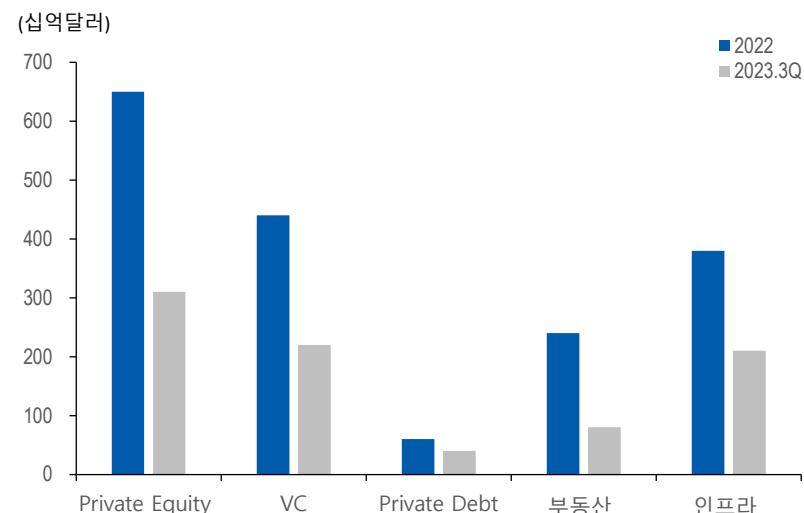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자산의 시장 분위기는 매우 위축

대체자산 중에서 부동산은 선진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여파로 기존 투자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가 뉴노멀이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

고금리로 레버리지 비용이 많이 들고, 물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자산 전 유형의 딜은 2023년 크게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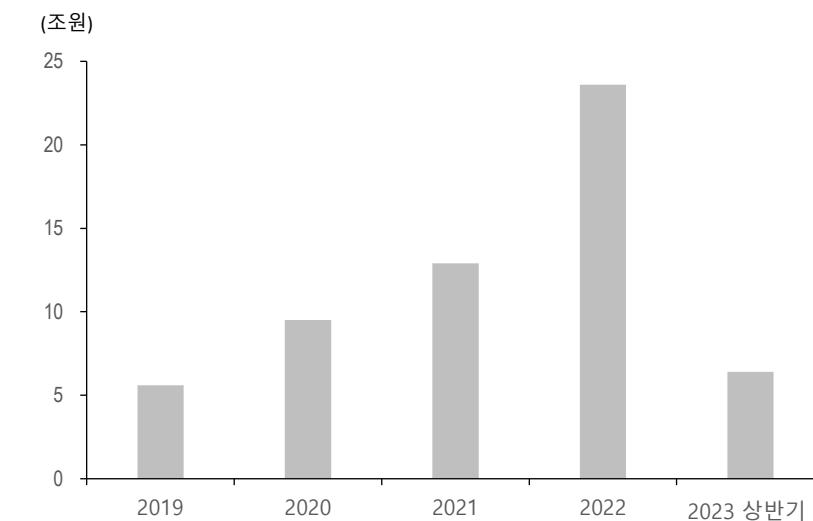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도 2022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23년 대체자산 전 유형의 딜 크게 감소



자료: Preqi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대체투자액



자료: 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원금 누적치 증가분 기준

선진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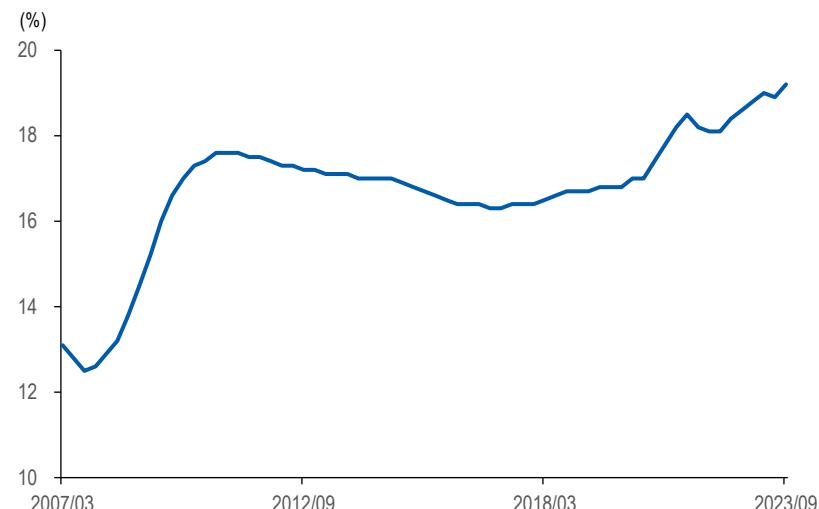
대체투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이 리스크 요인이 되었음

코로나19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도심의 오피스의 공실률이 높아졌음. 리오프닝 이후에도 선진국에서는

사무실 공실률은 국가와 도시마다 선별적임. 주거 공간이 아시아나 유럽보다 넓은 미국은 재택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조직문화의 차이 등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유지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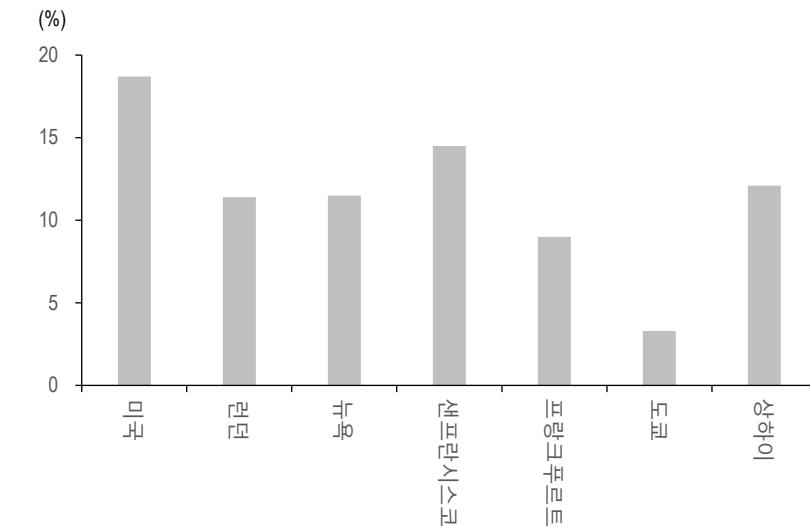
저금리에 실행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도시의 공실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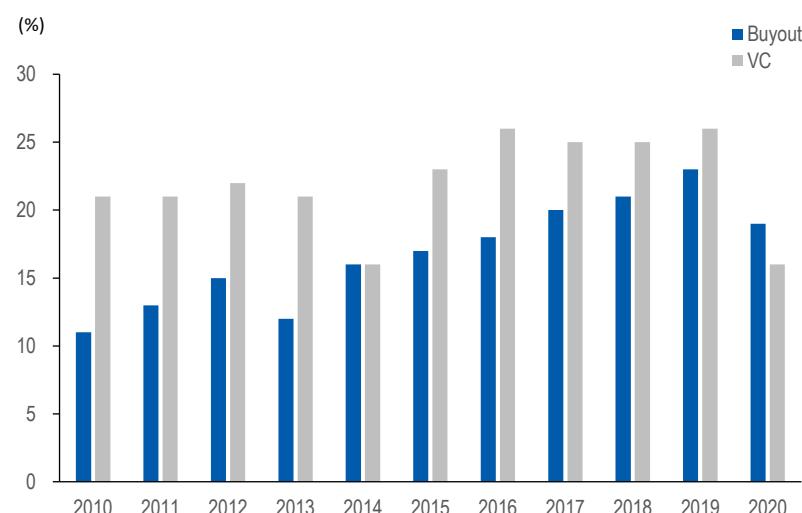
VC의 높은 IRR과 기관투자자의 집행 증가

State Street의 CalPERS의 자산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Buyout보다 VC의 IRR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0년 이후 VC의 IRR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0년 중반이후로는 Private Equity 자산에서 VC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CalPERS는 VC의 비중 증가를 위하여 2019년 새로운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을 적용. 새로운 자산은 CalPERS direct로 Innovation과 Horizon으로 구성. Innovation은 Tech/ 생명공학/ 헬스케어의 후기 단계에 투자. Horizon은 핵심 분야의 설립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 Direct는 새로운 지역이나 시장,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투자에 적합. 새로운 기술, 전략적 인수 등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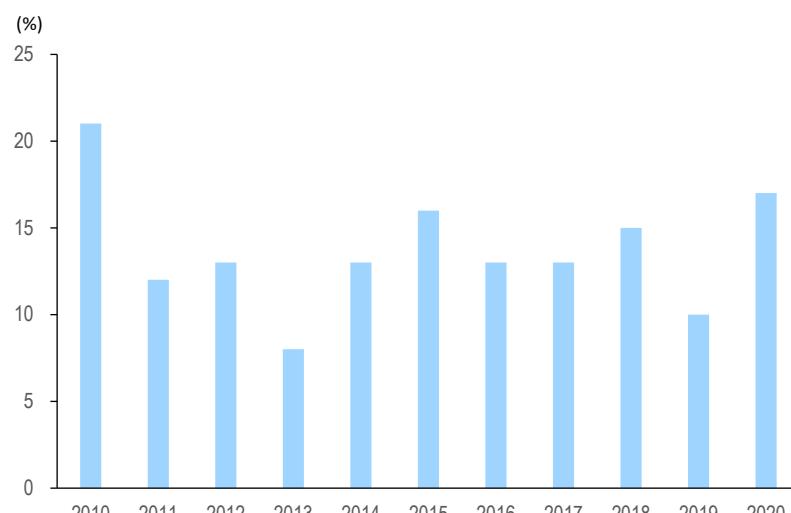
장기투자를 위하여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성과 평가와 보수 체계 마련. 기존 대체자산이 7~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목표로 했다면, Direct는 10~20년도 가능하도록 설계

CalPERS의 Buyout과 VC의 IRR



자료: CalP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alPERS의 Private Equity 중에서 VC의 집행 비중



자료: CalP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대학기금의 Private Equity/VC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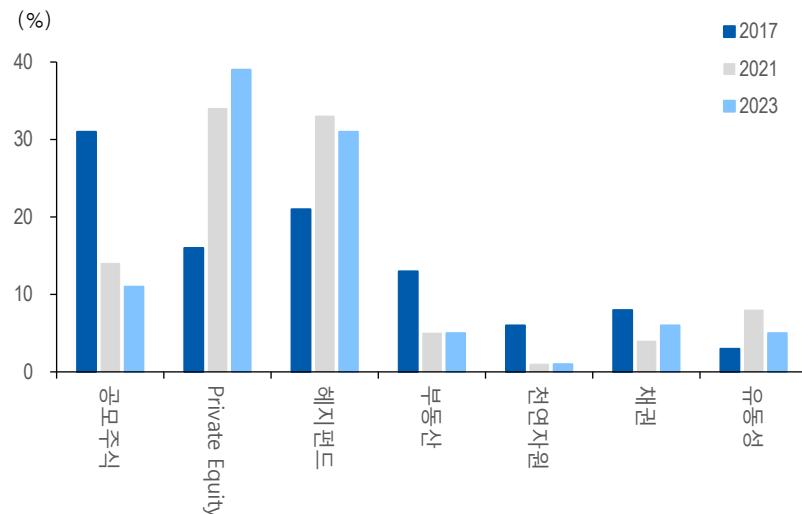
미국 주요 대학기금은 공모주식을 줄이고, Private Equity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음.

하버드대학기금은 2017년 30%였던 공모주식비중은 2023년 11%로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반면 Private Equity 비중은 16%에서 39%로 크게 늘어났음.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등의 자산 비중도 크게 줄어들어, 향후 전략자산은 Private Equity인 점이 나타남

예일대학기금도 2004년 12.8%와 14.8%였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비중이 2020년 각각 2.3%와 11.4%로 줄어들었음. 반면 2004년 14.5%였던 Private Equity 비중은 2020년 38.4%로 늘어났음. Private Equity 중에서 VC의 비중은 2014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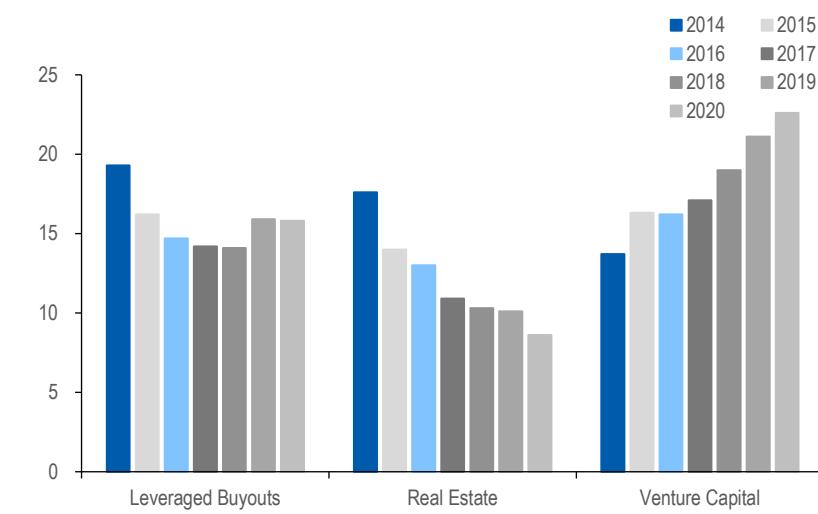
GIC, 테마섹, ADIA 등도 VC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음

하버드 대학기금의 자산배분 변화



자료: HM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예일 대학기금의 주요 자산군 비중 변화



자료: Yale Endowmen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사모대출(Private Debt) 집행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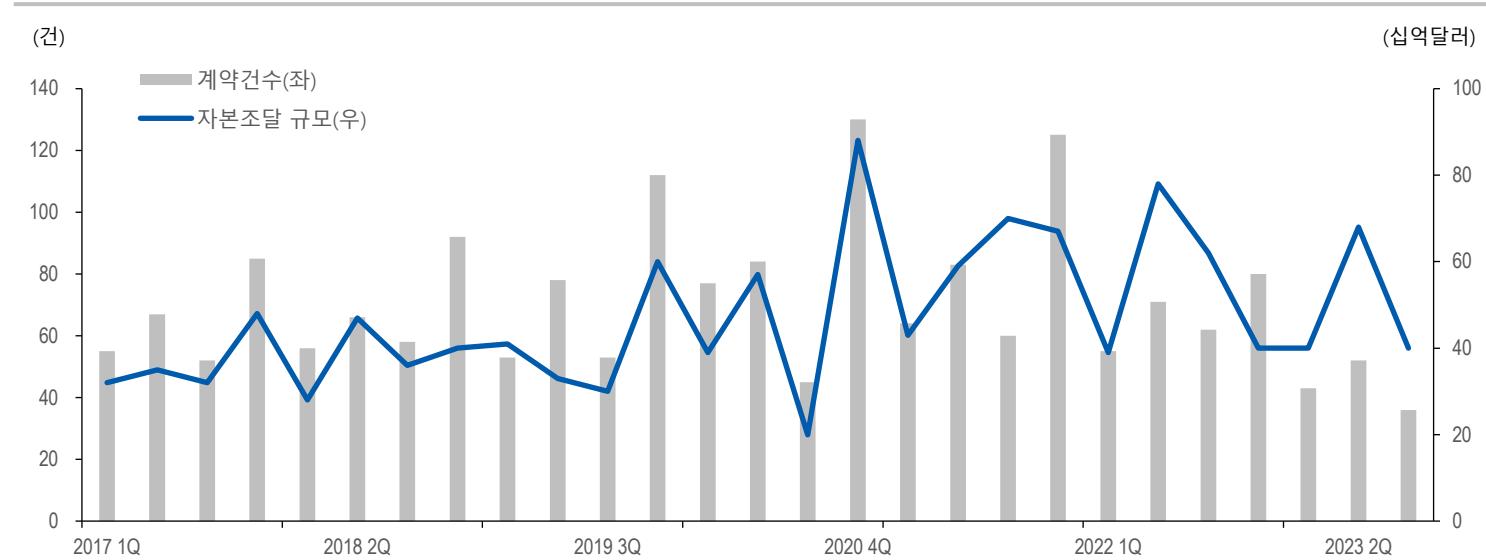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자산의 시장 분위기는 매우 위축

금리가 올라가면서, Private Deb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PDF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2023년 PDF 투자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해외 PDF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Private Debt 자산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주요 기관이 별도 자산군으로 분류하거나 조직 신설. 국민연금은 사모벤처투자실 아래에 사모대출 투자팀 신설. 사모대출은 별도의 벤처마크로 관리 중. KIC는 사모대출(Private Debt)을 별도 자산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벤처마크는 모닝스타 글로벌 레버리지 대출 지수(Morningstar Global Leveraged Loan Index)를 활용.

전세계 Private Debt 계약건수와 자본조달 규모



자료: Preqi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부진과 인도·대만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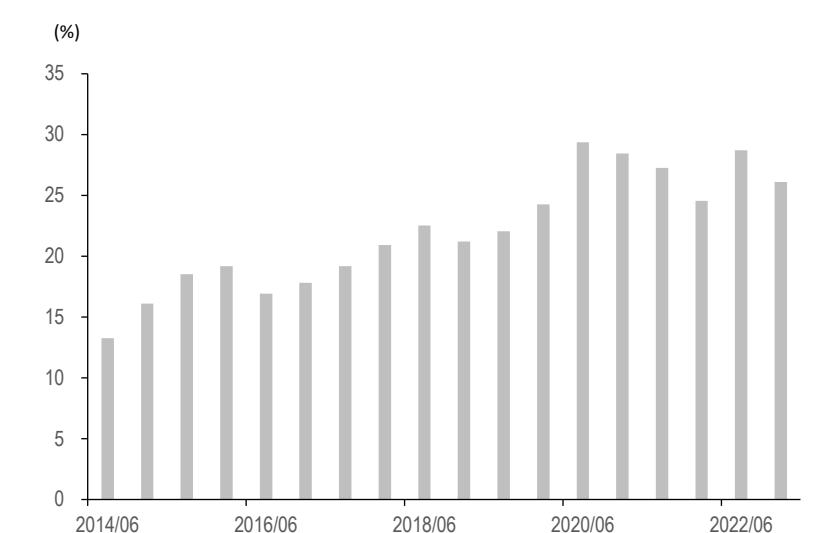
중국 부동산 부실과 부진한 내수경기, 미중 갈등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줄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29%까지 비중이 늘어났던 중국의 비중은 2023년말 20%까지 줄어들었음.

줄어든 중국의 비중은 인도와 대만,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음. 인도는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2012년 6%였던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의 비중이 2023년 14.6%까지 늘어났음. 대만도 4.8%에서 12.5%로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

신흥국 안에서 한국의 비중은 10%까지 늘어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인도와 대만에 비해서는 비중 증가 폭이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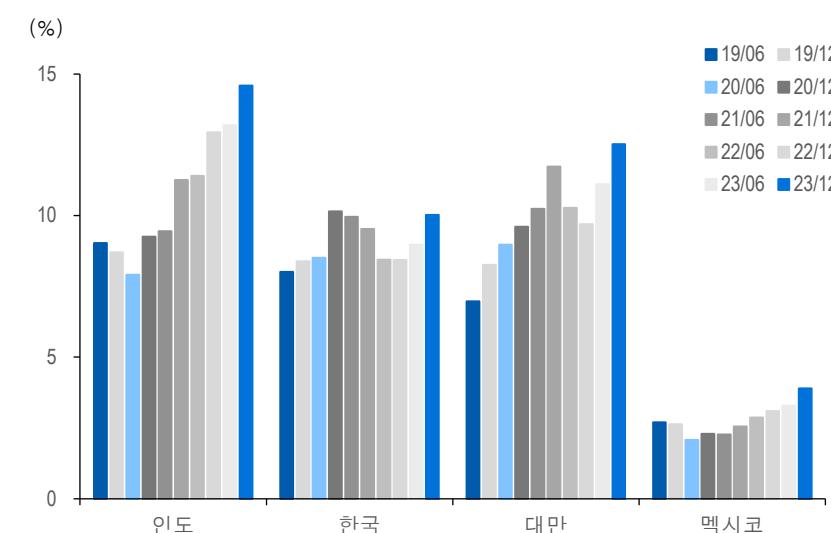
멕시코는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이후 투자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인도·대만·멕시코 비중 증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중국 투자 철회와 인도의 투자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글로벌 투자 기관투자자들은 중국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음. BM을 수정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음

반면, 신흥국 중에서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음. 인도는 IT 산업의 경쟁력이 높으며, 전세계적으로 세계 3위 규모의 유니콘 기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스타트업 경쟁력이 높음.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과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지원 노력, 젊은 층이 많은 인구 구조 등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에게 인도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음

인도의 투자 확대 정책으로 주요 기관투자들의 인도 사무소 설치도 늘어나는 추세임. 2024년에는 인도 뭄바이 사무소 설치 기관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요 연기금의 중국 투자 비중 축소 사례

시기	내용
2019.10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은 TSP 투자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
2022	플로리다주 연금은 중국 신규 투자 중단
2022.1	텍사스 교직원 연금(TRS)은 BM을 수정하여 중국 비중을 35%에서 17%로 축소
2023.4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주식 투자팀 철수
2023.9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폐쇄 결정
2023.11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는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MSCI All Country World ex USA ex China ex Hong Kong Investable Market Index로 변경. 홍콩과 중국 투자 비중 제외.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요 기관의 인도 사무소 설치 현황

시기	인도 뭄바이 사무소 설치
2004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2008	말레이시 국부펀드 '카자나'
2010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2015	캐나다 연기금 'CPIIB'
2022	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
2024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예정)
	아부다비 국부펀드 'ADIA'(예정)
	카타르국부펀드 'QIA' (예정)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투자 사례

시기	이슈
KIC	인도 중앙은행(RBI)으로부터 뭄바이 사무소에 대한 설립 승인 인가를 받았음. KIC는 뉴욕지사(2010년), 런던(2011년), 싱가포르(2017년), 샌프란시스코(2021년)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인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테마섹(2004년),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2008년), GIC(2010년), CPPIB(2015년), OPPP(2022년) 등이 인도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음
행정공제회	처음으로 인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에셋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GIC	Brookfield India REIT(BIRET)와 인도의 대규모 상업용 시설을 인수. 인수 자산에는 뭄바이의 브룩필드 다운타운 포와이와 Candor TechSpace가 포함되며, 기업가치는 약 14억달러
	Genus Power & Infrastructures와 조인트 벤처 설립. GIC는 지분 74%, Genus는 26%를 보유. 초기 투자금액은 20억달러. Genus는 인도에서 스마트 계량 사업 진행
ADIA	인도의 애그테크를 접목한 플랫폼 기업 Vegrow에 투자. Vegrow는 2만명 이상의 농부의 100개 도시에 위치한 도매업체의 데이터로 공급과 수요를 집계하여 효율적인 공급망 제공. 투자 규모는 4600만 달러이며, 공급망 확대에 투자금 쓰여질 예정
	구자라트 국제 금융 테크(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를 통해 인도 투자를 목표로 하는 40~5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 집행 예정
테마섹	아부다비 투자청(ADIA)은 KKR과 카타르 투자청(QIA)의 125만 달러 투자 후 2개월 이내에 인도 Reliance Retail에 INR 4970만(5억970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합의
	향후 3년 동안 90~100억달러를 인도에 투자하려 계획. 테마섹은 2023년 인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주요 투자 건을 2023년 이익실현한 바 있음
인도 상장사 PB 핀테크(PB Fintech)의 지분 5.4%를 24억2500만 루피에 매각	인도의 MHE(Manipal Health Enterprises) 지분 8%를 매각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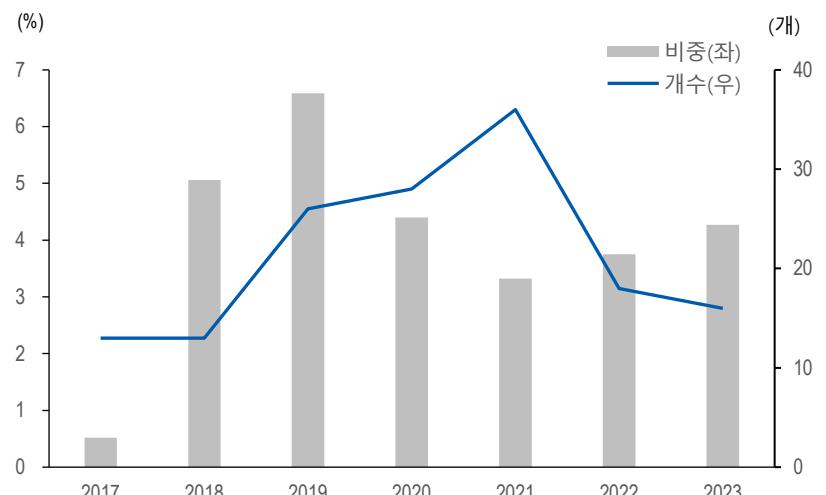
ETF 시장 확대와 ETF의 다양화로 ETF를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ETF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SEC에 보고되는 13F(미국 상장된 주식을 1억달러 이상 투자한 기관 투자자 분기별 보고)를 기반으로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사례를 분석해 보았음(2023년 9월 기준). 노르웨이 국부펀드, CalPERS, APG, 하버드대학기금처럼 ETF에 투자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도 존재하고 있음

2020년 이후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S&P500, Russell2000 등과 같은 대표 지수나 신흥국·부동산·ESG 등과 같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바이오·금융·에너지·IT 등의 섹터 ETF 투자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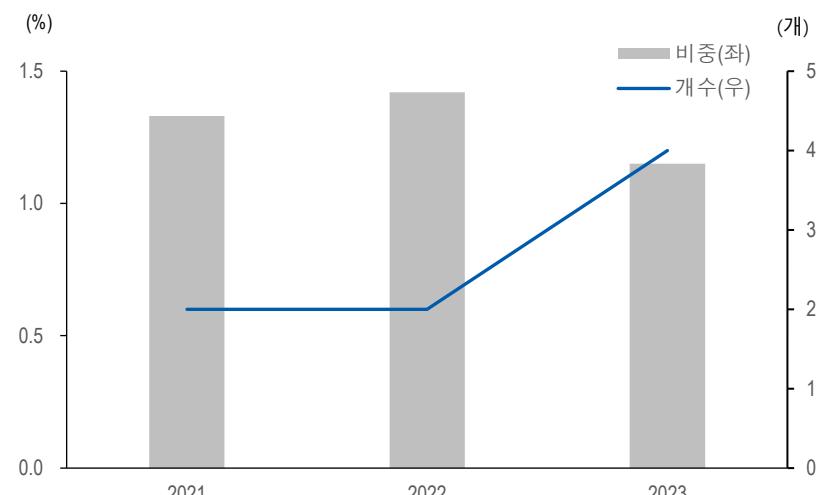
기관별로 보고된 미국 주식 중에서 ETF 비중과 ETF 수 추이를 살펴보았음

CPPIB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alSTRS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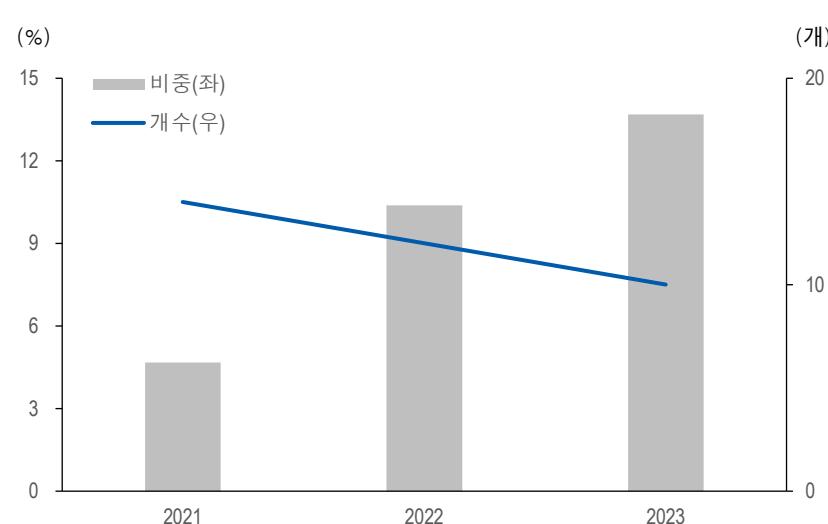
캐나다의 CPPIB는 2017~2018년까지 투자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음. 미국주식, 채권, 해외주식, 원자재, 신흥국, 섹터 등 다양한 ETF에 투자하였으나, 2020년 이후 투자 비중은 줄어들었음. 2023년 3분기에는 미국 대표 지수와 채권, 바이오·반도체·IT 등 섹터 ETF에 투자하고 있음

미국의 CalSTRS는 2021년부터 ETF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미국 주식 중에서 1.2~1.4%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ESG 관련 ETF에만 투자하고 있음. ESG 관련 투자는 리서치나 정보 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ESG ETF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MetLife는 미국 주식 중에서 14% 정도는 ETF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종목은 2021년부터 줄여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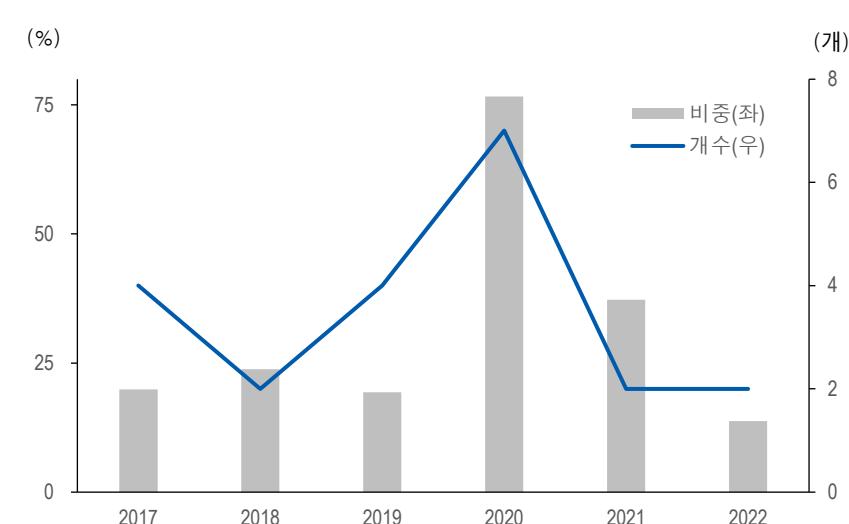
각 기관들이 ETF 투자를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투자를 했다가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ETF로 추려나가는 경우가 많음. Yale 대학기금도 ETF 투자 비중과 투자 종목이 2020년 이후 줄어들었음

Metlife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Yale Endowment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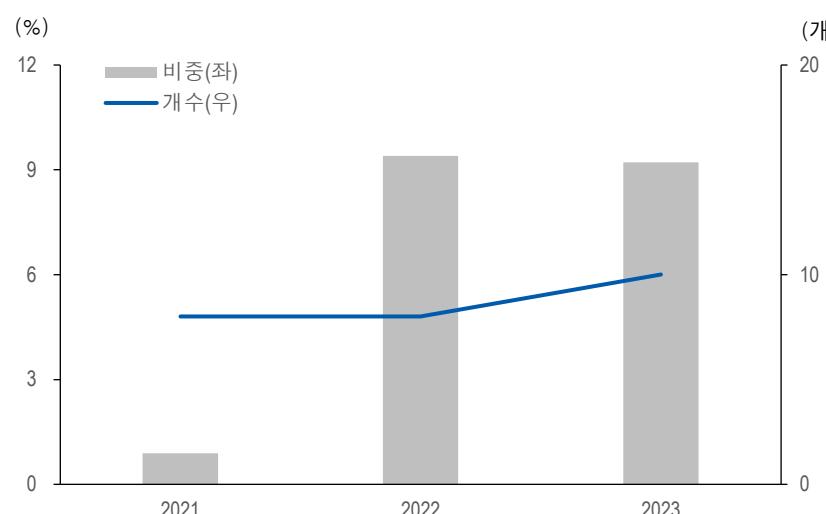
해외 기관투자자의 ETF 활용

텍사스 연기금(Employees Retirement System Of Texas)은 2021년 이후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미국 대표 지수와 섹터 ETF, 선진국 ETF, 채권 ETF 등에 투자하고 있음

테마섹도 2021년 ETF 투자를 크게 늘린 이후에 2023년까지 투자 비중과 ETF 수를 줄여나가고 있음, 2023년에는 채권 ETF와 미국 대표 지수 등에 투자 하고 있음. 개별 국가 ETF로는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터넷 ETF에 투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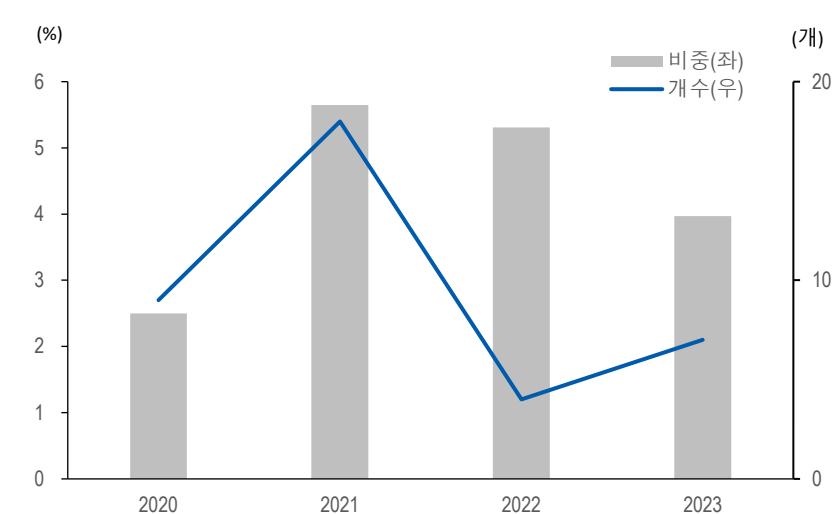
ETF 투자 종목이 다양해지면서,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대표 지수나 지역뿐만 아니라, 섹터나 ESG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텍사스 연기금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테마섹의 ETF 투자 비중과 ETF 수



자료: SE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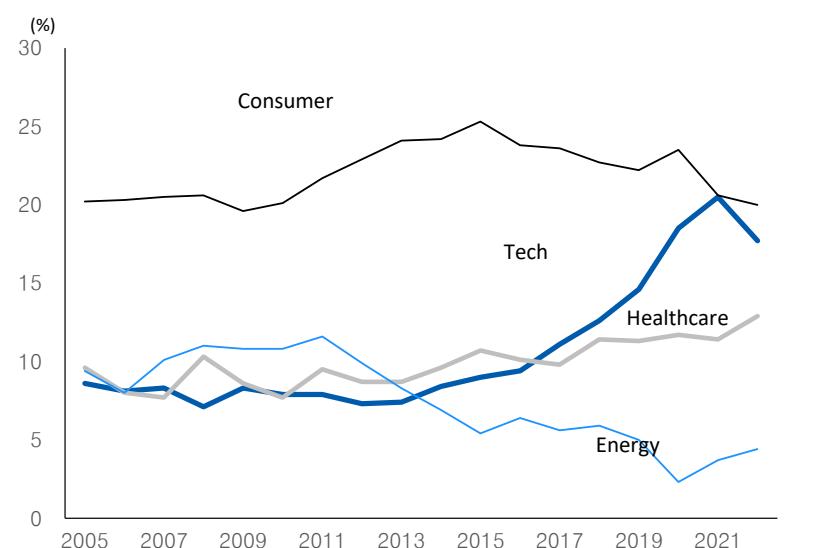
AI와 IT, ESG

VC, Buyout 등 대체자산 분야에서는 AI와 IT, ESG 등의 분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AI와 IT 등의 새로운 변화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기관 투자자들은 관련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2015년 이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부채 부담이 없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국부펀드와 대학기금 등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 2.8억달러를 투자한 테마섹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업체에 투자를 하였음. 일부 투자건 실패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변화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전략은 포기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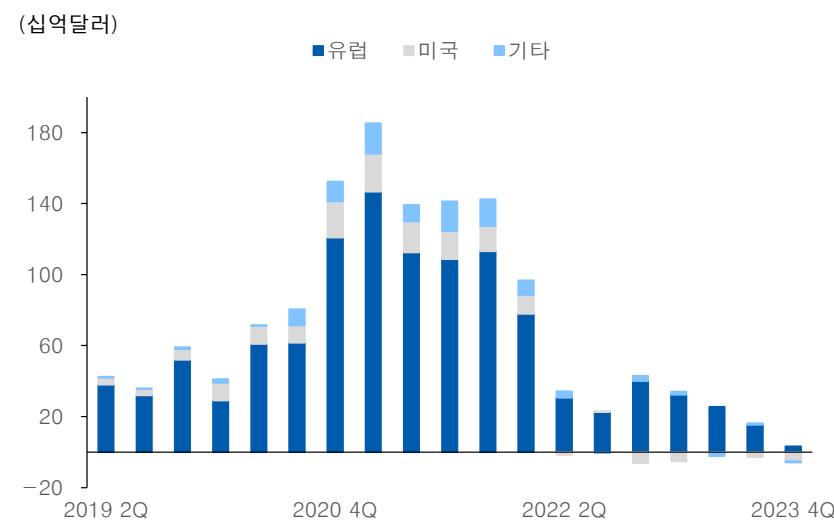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기후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집행하면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있음. 반면 공모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회복되지 못하고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NBI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Sustainable fund의 자금 유입 규모 감소 추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T와 AI 투자 사례

시기	이슈
GIC	Pagaya Technologies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GIC는 기존 자금 조달 계약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래 5년 기간에 추가로 3년 더 연장하고, 클래스A 주식 지분을 9%로 확대. Pagaya Technologies는 PAYAGA는 이스라엘의 Financial Tech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용분석을 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경찰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도 참여. 총 투자 규모는 9000억원이며, 준공 시점은 2026년
	Asian Institute of Digital Finance (AIDF)와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박사 인재 양성 사업을 하기로 함
	인도의 애그테크를 접목한 플랫폼 기업 Vegrow에 투자. Vegrow는 2만명 이상의 농부의 100개 도시에 위치한 도매업체의 데이터로 공급과 수요를 집계하여 효율적인 공급망 제공. 투자 규모는 4600만 달러이며, 공급망 확대에 투자금 쓰여질 예정
CPPIB	스마트 모빌리티 스쿨버스 기업인 Zum의 시리즈 E에 참여. 시리즈E의 투자 규모는 1.4억달러이며, GIC와 Climate Investment, Sequoia 및 SoftBank Vision Fund 2 등 기존 투자자도 참여
	Silver Lake와 나스닥에 상장된 여론조사 관련한 소프트웨어업체 Qualtrics를 125억달러 인수를 위해 매수. Qualtrics의 대주주는 SAP으로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음. 거래가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상장 폐지됨
테마섹	자회사 CPP Investment Board Europe은 유럽의 주요 업무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Visma의 지분 매각. Visma의 지분을 약 2% 보유하였으며, 순수익을 7억 캐나다 달러
	디지털 정신 건강 전문 기업 쏘트풀(ThoughtFull)에 투자
GIC	암호화폐(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트라이프에 기존주주 안드레센 호로위츠, 베일리기포드, 파운더스 펀드, 제너럴 카탈리스트, MSD 파트너스, 스라이브 캐피털, GIC, 골드만삭스에셋 앤 웰스매니지먼트와 함께 투자. 기업가치는 500억달러로 평가되었고, 투자 규모는 65억달러
	AI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인 Thoughtbot에 투자. 기업 가치는 10억달러로 평가되었고, 투자 규모는 1억달러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T와 AI 투자 사례

시기	이슈
테마섹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알고리즘 화폐 시스템 개발업체 Array에 1000만달러 투자
	자율주행시스템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위한 안전 중심 검증 및 검증(V&V)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레텔릭스(Foretellix)는 시리즈 C에 85만달러 조달. 시리즈C에 테마섹도 참여
	교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LXP'를 서비스하는 한국의 엘리스그룹에 자회사 버텍스 글로스가 시리즈C에 투자. 시리즈 C에는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참여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투자 사례

시기	이슈
CalPERS	기후관련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규모인 1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ABP	APG는 SSE Renewables와 4GW의 네덜란드 북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
GPGF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위치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사업의 지분 49%를 Iberdola로부터 6.3억유로에 매입. 지분 51%는 Iberdola가 소유하며, 운영도 맡게 됨. 해당 발전 사업은 2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2개의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음
GIC	유럽의 전기 기관차 리스 회사인 Railpool Group의 지분 27%를 Palladio Partners로부터 인수. 이번 거래로 GIC는 Railpool Group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 Railpool은 2008년에 설립되어 전기 기관차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글로벌 클린 에너지 기업 TagEnergy는 5.7억달러의 그린 본드를 발행하고,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GIC가 투자하기로 함. TagEnergy는 2019년 설립되었으며, 호주와 영국에서 풍력사업을 하고 있음
	H2 Green Steel은 Just Climate·Altair·GIC·Hy24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15억유로 자금 조달. 투자자금은 스웨덴 보덴에 위치한 H2 Green Steel의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에 투입
테마섹	미국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전문기업 아모지의 시리즈B에 아람코벤처스, 영국 수소산업 전문 투자기업 AP벤처스, 일본 상선미쓰이(商船三井·MOL)의 투자사 MOL플러스, 고려아연, SK이노와 함께 참여. 아모지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주입해 탄소배출 없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음
	디지털 정신 건강 전문 기업 콘트롤플(ThoughtFull)에 투자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G 투자 사례

시기	이슈
CPPIB	Votorantim S.A와 브라질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Floen 설립. 지분은 50%씩 가지게 됨
	자회사 CPP Investment Board Europe을 통해 FCC Servicios Medio Ambiente Holding, SAU의 지분 25%를 9.7억달러에 인수. FCC Servicios Medio Ambiente Holding은 Fomento de Construcciones y Contratas, S.A.(“FCC”)의 환경 서비스 파트로 영국, 이베리아반도, 중부 유럽의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음. 재활용과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순환경경제 플랫폼 구축
	수소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Power2X와 파트너십 체결하고, CPPIB는 1.3억유로 투자
	Mombak Gestora de Recursos가 관리하는 아마존 조림기금에 투자. Mombak은 벤처 지원을 받는 탄소 제거 스타트업 투자 관리자로 아마존 재조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PPIB는 최대 3천만달러 투자
	자회사 CPPIB Renewables Europe는 Enbridge Inc.의 자회사와 독일 해상 풍력 발전소 두 곳의 지분 24.5%를 매각. 풍력 발전 단지는 독일 북해 연안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운영 시작
	Octopus Energy Group(Octopus)에 3억 파운드(C\$5억 1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 Octopus는 청정 에너지 서비스 개발을 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도 및 조직 변화

국민연금

- 한국은행과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계약신규 체결
- 런던증권거래소그룹 자회사 FTSE 러셀(Russell)과 협업을 통해 'FTSE EPRA Nareit Developed Extended Opportunities RIC 6/45 Capped Index'를 개발. 부동산 기핵심 자산 활용 확대
- 사모벤처투자실 아래에 사모대출 투자팀 신설. 사모대출은 별도의 벤치마크로 관리 중

KIC

- 사모대출(Private Debt)을 별도 자산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결정

교직원공제회

- 주식운용 부문과 인프라투자 부문 내 각각 1개 팀을 증설

공무원연금

-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한 연차별 계획인 'GEPS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기금	내용	비고
군인공제회	신임 건설투자부문이사(CIO)로 김용석 건설인프라본부장 선임	내부 승진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CIO)에 전범식 SK증권 대체사업부 대표 임명	사학연금 1991~2012 근무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CIO로 이상민 경영전략 본부장 선임	내부 승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해외주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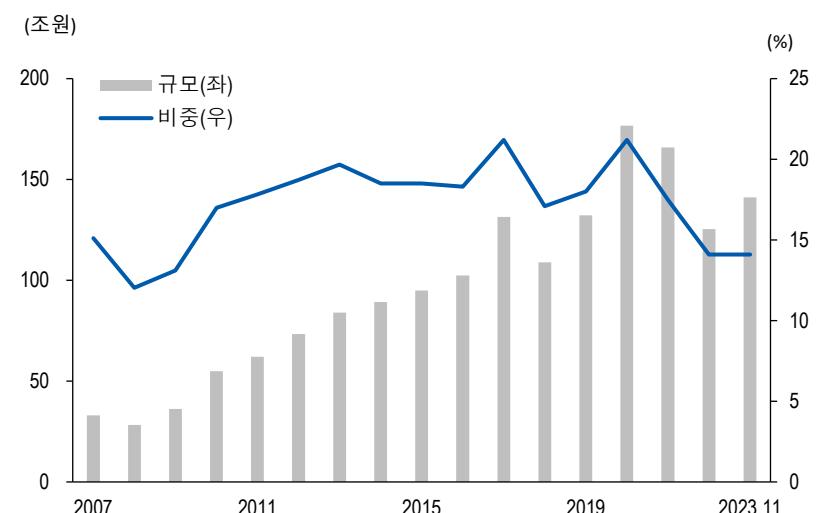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3.2%이며, 2024년 국내주식 목표 투자 비중은 15.4%임. 2026년 국내주식의 목표 투자 비중은 14.5%로 2023년 10월 투자 비중은 2026년과 비교하여도 1.3% 낮은 수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30%

대체투자 중 사모대출 확대 움직임. 사모벤처투자실 아래에 사모대출 투자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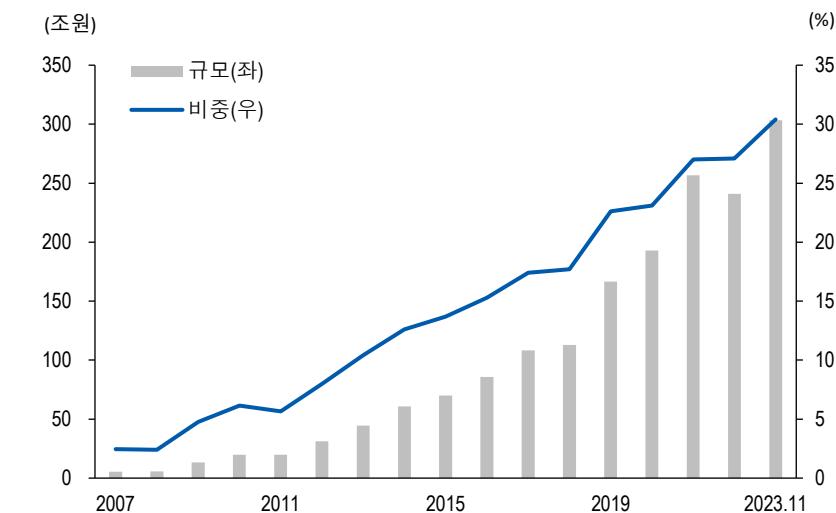
전통 부동산 자산을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셀프스토리지(물품보관서비스), 요양시설, 생명과학 연구시설, 삼림, 단독주택, 조립식주택, 병원·진료시설, 학생 기숙사 등이 틈새 및 비핵심 섹터의 벤치마크 개발

국민연금, 국내주식 규모와 비중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해외주식 규모와 비중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직원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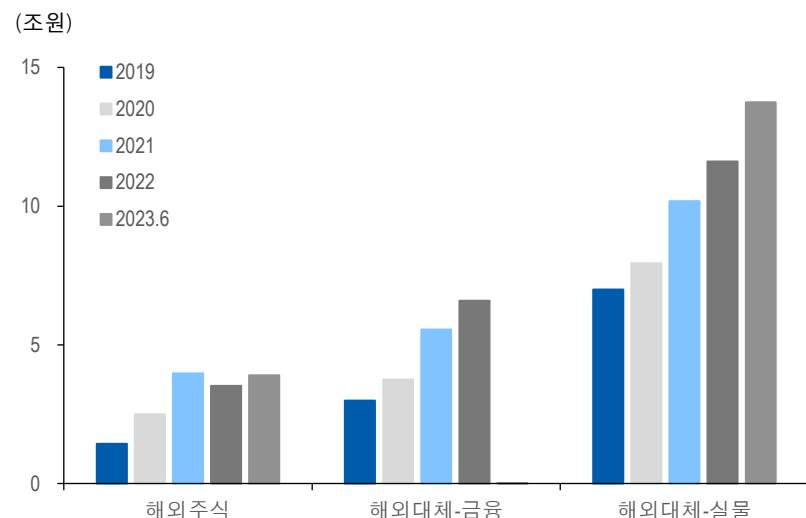
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자산 40.6%, 해외자산 54.3% 투자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의 직접운용을 시작하여 전체 자산의 3.0%인 1.5조원을 직접 운용

해외대체투자는 전체 자산의 42.6%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8%인 13.7조원이 실물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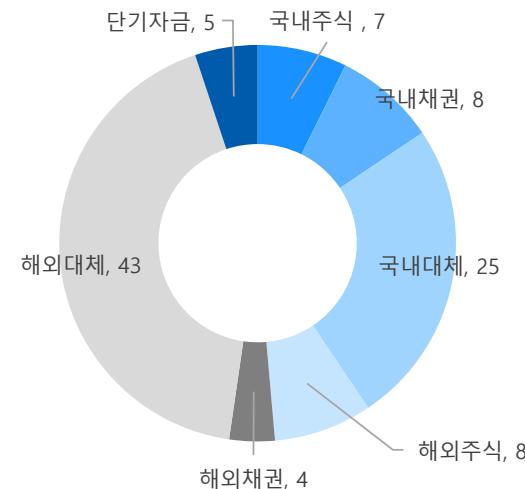
주식운용 부문과 인프라투자 부문 내 각각 1개 팀을 증설하는 조직 개편 단행. 금융투자부문은 금융투자1팀이 국내외 주식 직접운용, 2팀은 국내외 주식 위탁운용, 나머지 3팀은 국내외 채권직접·위탁운용 업무를 담당. 대체투자 부문의 경우 기존 1부 3개 팀에서 1부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종전에 대체투자1팀이 맡던 인프라투자 업무를 미주와 유라시아로 지역별로 분리

교직원공제회, 해외자산 투자 규모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직원공제회, 자산 비중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6월

사학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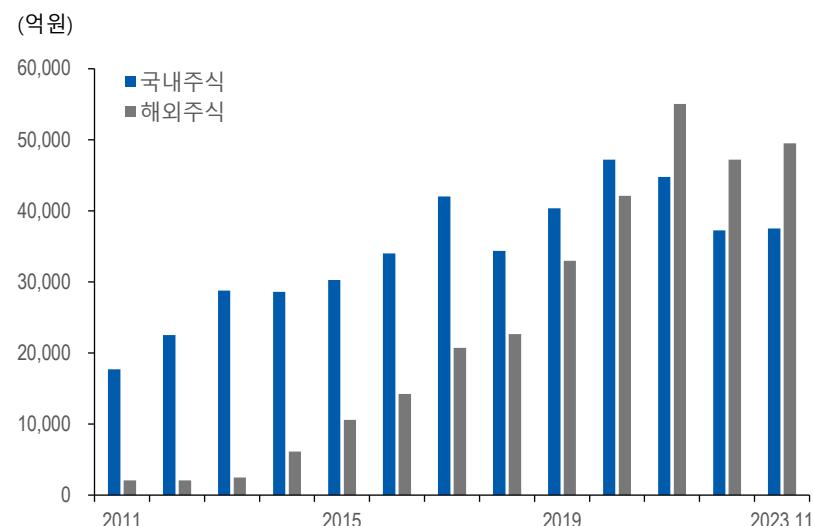
사학연금의 자산 규모는 23.9조원으로 주식 8.7조원, 채권 8.5조원, 대체 5.8조원으로 구성

2021년부터는 해외주식 자산 규모가 국내주식의 비중보다 많아졌음

대체투자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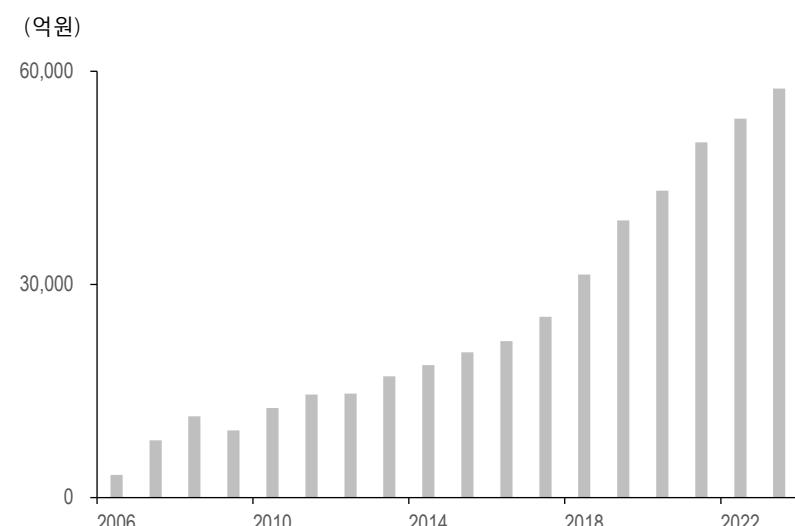
올해 자금 운용관리 단장에 전범식 SK증권 대체사업부 대표 임명. 사학연금으로 입사하며 채권운용팀, 투자분석팀, 리스크관리팀, 대체투자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과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거침.

사학연금, 주식자산 규모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사학연금, 대체자산 규모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무원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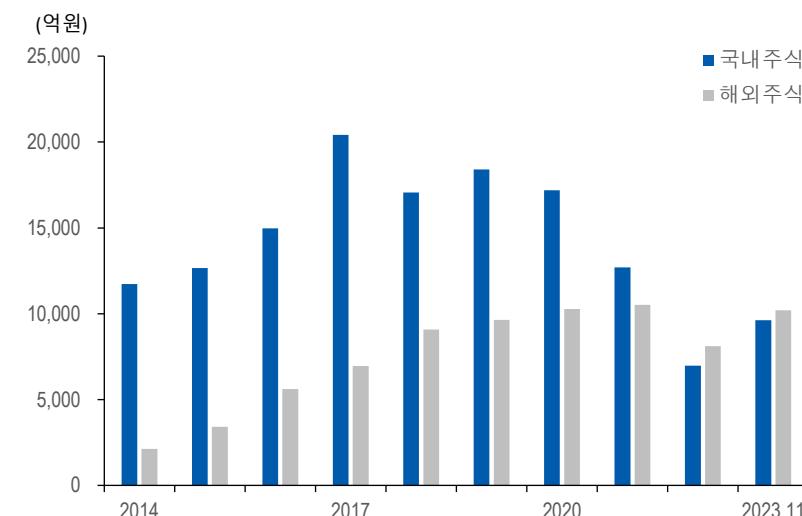
공무원연금의 자산 규모는 8.4조원으로 주식 2.0조원, 채권 2.3원, 대체 2.2조원으로 구성

CIO 취임 이후 글로벌 바이아웃, 부동산 대출 펀드 등을 처음으로 자금 집행

채권·주식·대체 등 자산군별 1:1:1 투자 전략, 해외주식의 ETF를 활용한 직접운용,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힘. 국내주식 투자는 '분산투자' 원칙이 담긴 '핵심 위성(Core-Satellite) 전략'으로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코어(핵심)' ETF와 함께 개별종목, 섹터, 테마 등 '새틀라이트(위성)' ETF를 통해 초과 수익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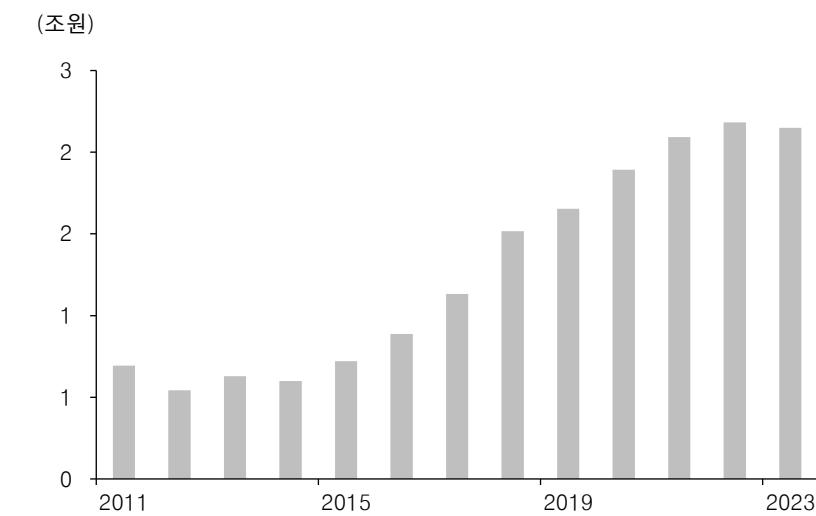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한 연차별 계획인 'GEPS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공무원연금, 주식자산 규모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무원연금, 대체자산 규모



자료: 기관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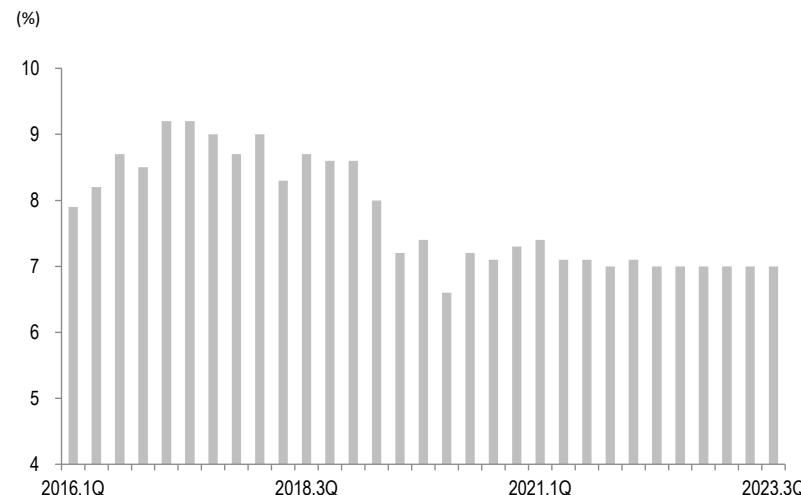
ABP (네덜란드): 대체자산 확대

2022년 2분기 주식 비중은 24.1%로 2022년 26.6%에 비해 크게 낮아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 비중이 낮아졌을 때가 30%였음. 2023년 3분기 말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은 각각 17.1%와 7.0%임

ABP의 신흥국 주식 비중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져, 2023년 3분기 신흥국 주식 비중은 7.0%까지 낮아짐. 2019년부터 신흥국 주식 비중은 7% 내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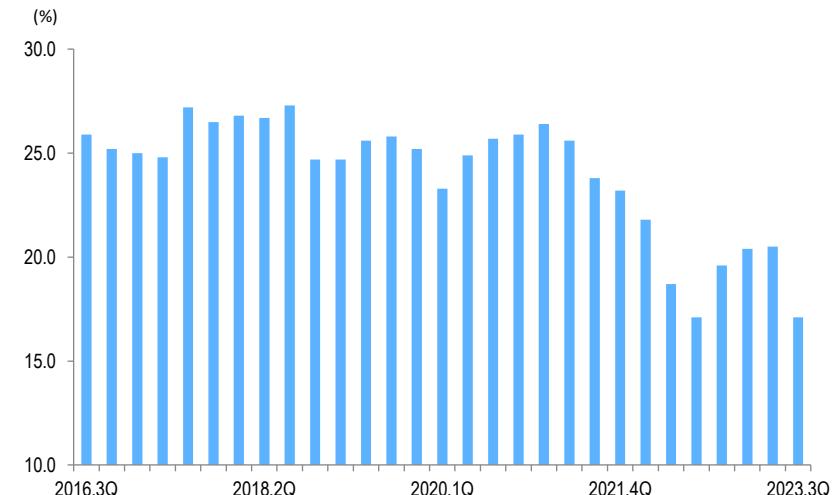
ABP는 물류, 고속도로 등 인프라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대체 투자 비중 증가

ABP, 신흥국 주식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음



자료: AB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BP, 3분기에 선진국 주식 이익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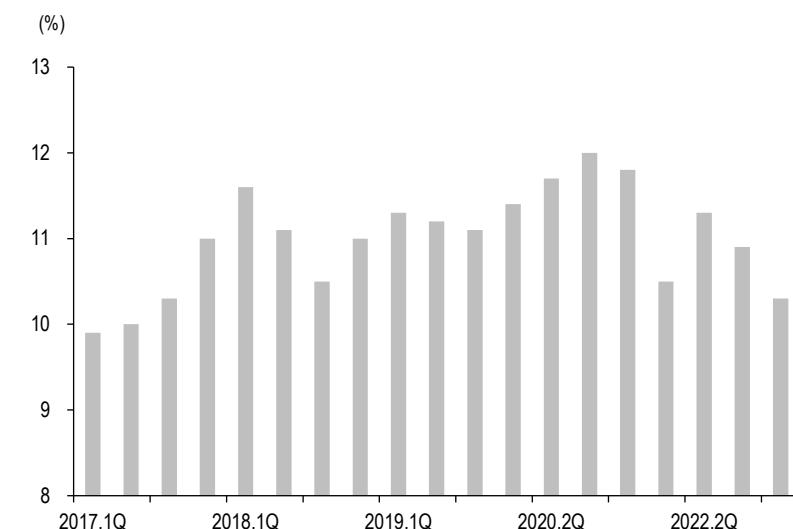
자료: ABP,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PGF(노르웨이): 주식 비중 확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6년에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채권 강세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60%로 정해져 있던 주식 비중을 70%까지 확대. 2020년에는 주식비중이 72.8%까지 늘어났으나, 이익실현을 하면서 2021년 72%로 축소. 2023년 상반기는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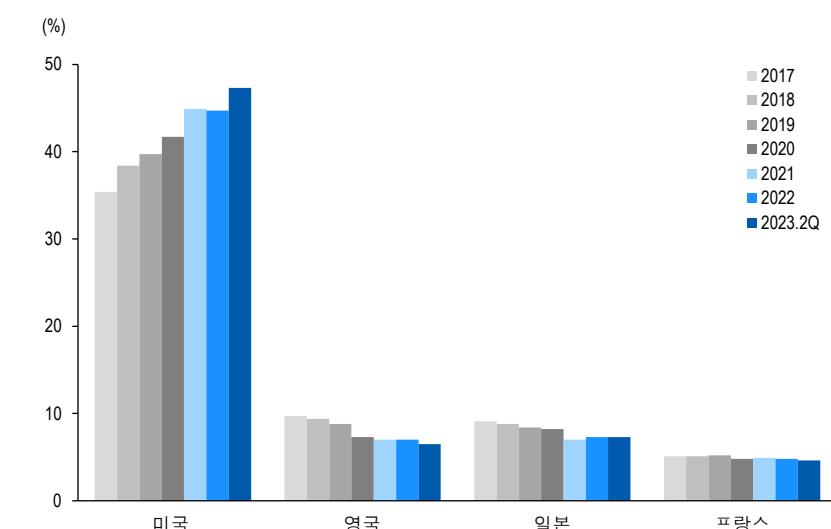
2015년에 신흥국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인 후, 2016년초부터 점진적으로 신흥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음. 2022년 이후부터 신흥국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음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비중이 꾸준히 증가. 반면, 영국의 비중이 2013년 이후 계속 하락

GPGF, 신흥국 주식비중 축소



자료: GPG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PGF, 미국 비중 계속 증가



자료: GPG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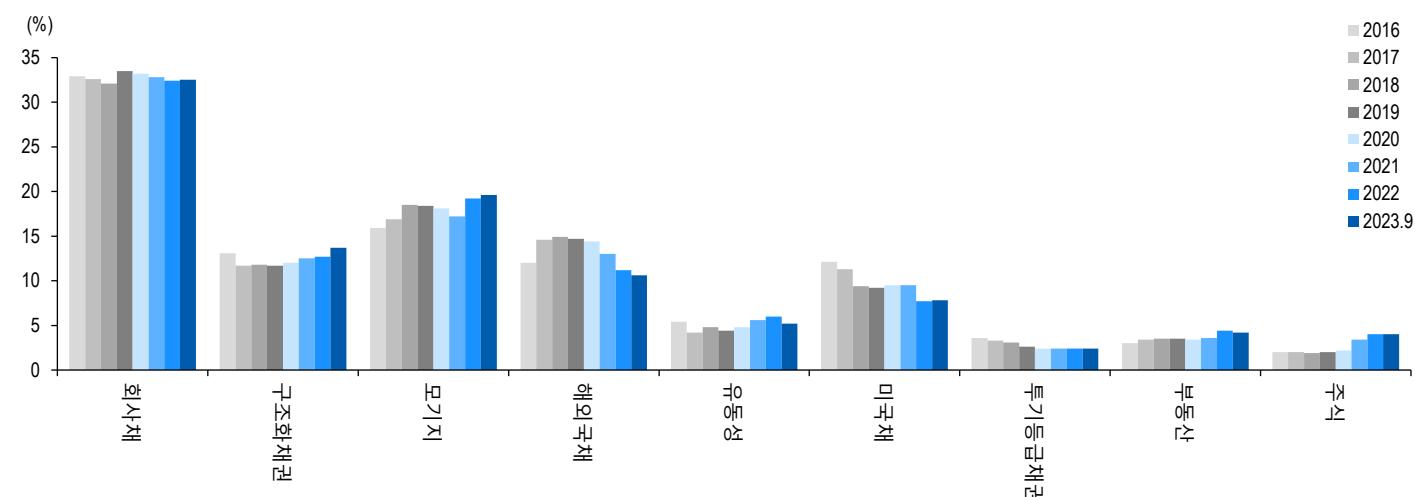
Metlife(미국)

MetLife는 미국 1위의 생명보험사로 개인연금보험은 2위 차지. 전세계 60개국에서 사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etlife는 저금리 상황 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08년 이후 해외국채의 비중 확대. 단기채 및 유동성 비중 축소. 미국채의 비중은 확대하였음
2022년에는 회사채와 해외국채 비중은 줄었으나, 모기지채권 비중은 증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채권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음

2023년 회사채와 구조화채권, 모기지 채권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해외국채와 유동성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부동산 주식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주식 비중은 유지 .

Met Life의 주요 자산군



자료: Metlif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시기	이슈
2023년 4월	한국은행과 2023년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계약 신규 체결. 2022년 9월 한국은행과 10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베인캐피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바이아웃 투자를 위해 만드는 아시아 5호에 LP로 참여. 목표 결성 금액은 50억달러
2023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자회사 FTSE 러셀(Russell)과 협업을 통해 'FTSE EPRA Nareit Developed Extended Opportunities RIC 6/45 Capped Index'를 개발, 2022년 11월부터 글로벌 지수로 활용. 지수는 사무용 빌딩,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을 비롯해 전통 섹터 위주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 데이터센터, 셀프스토리지(물품보관서비스), 요양시설, 생명과학 연구시설, 삼림, 단독주택, 조립식주택, 병원·진료시설, 학생 기숙사 등이 틈새 및 비핵심 섹터로 분류
	국민연금, KIC, 교직원공제회, 교보생명 등이 유럽의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인프라 펀드에 투자. 펀드는 100억유로(약 14.7조원)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민연금은 약 5억 유로 투자 검토. 다른 기관은 500~1000억원 규모로 투자 검토. 운용자산 규모가 306억유로인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4개 대형펀드에서 북미와 유럽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며, 연간 15% 수준의 IRR 기록.
	삼성화재, 코리안리, GS리테일, 한샘, 아이에스동서, 금호석유화학, 한국카본, 메리츠금융지주, 파마리서치 등 9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IMM크레딧앤솔루션(IMM CS)이 KT클라우드 투자를 위하여 프로젝트 펀드 결성. MM CS는 KT클라우드의 지분 약 13%를 보유하게 됨. 국민연금 2000억원, 신한금융그룹과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500~1000억 규모 출자
2023년 6월	2028년까지 목표수익률 5.6%로 결정.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
	이지스자산은 국민연금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 등이 출자한 부당산 펀드로 2012년 남산그린빌딩을 2500억원에 매입. KKR과 남산그린빌딩은 4790억원에 매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KIC,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VIG파트너스는 2012년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미국 텍사스의 세일가스 광구 이글포드 지분 인수를 위하여 5천500억원의 펀드 조성. 국민연금 4500억원, 새마을금고 700억원, 지방행정공제회가 300억원 투자. 10년 만기 이후 펀드를 청산하며, 유상감자 형식으로 청산. 한국 석유공사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딜

국민연금

시기	이슈
2023년 7월	KT자산운용은 국민연금이 출자한 케이리얼티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회사를 통해 보유한 문정프라자를 시행사 동훈에 매각. 2013년 2303억원에 매입했으며, 매각가는 2850억원
	해외사무소 근무자의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2년마다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관련 부서와 3개월 내에 대면 협의)한다 해외 근무 가능 기간은 1년 더 늘려서 최장 6년으로 변경
	금운용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상근 위원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비상근 위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모든 위원이 한차례 연임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위원직 수행하게 됨
	CVC캐피탈이 조성한 9호 바이아웃 펀드에 국민연금이 6억5000만유로(약 9200억원) 투자. 펀드는 260억유로(37조원 <u>으로</u> 조성 완료). 교직원공제회는 5000만 유로를 투자하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출자 참여.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조성한 4호, 6호, 7호 펀드에 투자하였음.
	UCK파트너스는 2022년7월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자격으로 2400억원을 출자받기로 결정되었고, 'Unison Capital(유니슨캐피탈) PEF 3호' 8300억 규모로 조성 완료. 교직원공제회도 투자자로 참여. UCK파트너스는 공차, 구르메F&B, 메디트,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바 있음
2023년 8월	2021년 하인즈와 결성한 컨소시엄이 영국 사우스워크 의회에 복합단지 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은 런던 템즈강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인근에 아파트와 레니던스, 사무실 등 3개 동을 건설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0억 파운드 규모
	호주 물류센터 자산 20건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지분 50%를 2012년 1억 4900만 호주 달러에 인수. 호주 물류센터 지분 50%를 호주 교직원 연기금 유니 슈퍼에 5억 6000만달러에 매각
2023년 11월	국내 벤처펀드 위탁 운용사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선정. 펀드의 투자 기간은 4년이고, 만기는 8년. 총 1500억원 내외 자금 배정
	SEC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 28만 2673주 매수.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연금

시기	이슈
2023년 12월	사모벤처투자실 아래에 사모대출 투자팀 신설. 사모대출은 별도의 벤치마크로 관리 중 해외인프라 벤치마크를 'OECD CPI 상승률+5%'의 원화해지 기준 수익률'에서 'OECD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년 평균치+5%'의 원화해지 기준 수익률'로 변경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직원공제회

시기	이슈
2023년 5월	국민연금, KIC, 교직원공제회, 교보생명 등이 유럽의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인프라 투자 펀드에 투자. 펀드는 100억유로(약 14.7조원)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민연금은 약 5억 유로 투자 검토. 다른 기관들은 500~1000억원 규모로 투자 검토. 운용자산 규모가 306억유로인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4개 대형펀드에서 북미와 유럽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며, 연간 15% 수준의 IRR 기록.
2023년 7월	주식운용 부문과 인프라투자 부문 내 각각 1개 팀을 증설하는 조직 개편 단행. 금융투자부문은 금융투자1팀이 국내외 주식 직접운용, 2팀은 국내외 주식 위탁운용, 나머지 3팀은 국내외 채권직접·위탁운용 업무를 담당. 대체투자 부문의 경우 기존 1부 3개 팀에서 1부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종전에 대체투자1팀이 맡던 인프라투자 업무를 미주와 유라시아로 지역별로 분리
	CVC캐피탈이 조성한 9호 바이아웃 펀드에 국민연금이 6억5000만유로(약 9200억원) 투자. 펀드는 260억유로(37조원_으로 조성 완료. 교직원공제회는 5000만 유로를 투자하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출자 참여.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조성한 4호, 6호, 7호 펀드에 투자하였음.
	UCK파트너스는 2022년7월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자격으로 2400억원을 출자받기로 결정되었고, 'Unison Capital(유니슨캐피탈) PEF 3호' 8300억 규모로 조성 완료. 교직원공제회도 투자자로 참여. UCK파트너스는 공차, 구르메F&B, 메디트,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한 바 있음
2023년 10월	총 3000억 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 출자 대상 위탁운용사들을 선정. 대형 부문은 어펄마캐피탈, 중형 부문에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케이스톤파트너스, 제이엔PE, 에이치PE 등 네 곳, 루키 부문에 아크앤파트너스, 다올PE 등 두 곳 선정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사학연금

시기	이슈
2022년 8월	기금 규모 증가와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과 연기금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가 강조되는 만큼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실 신하에 기금관리팀을 신설. 증권운용실에는 국내채권과 국내주식을 통합 운용하는 국내증권팀 신설
2022년 9월	이규홍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이규홍 CIO는 이스트스프링자산, NH아문디자산의 CIO를 거쳐 아센다스 자산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9년 10월부터 사학연금의 CIO를 맡고 있음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IC

시기	이슈
2023년 5월	국민연금, KIC, 교직원공제회, 교보생명 등이 유럽의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인프라 투자 펀드에 투자. 펀드는 100억유로(약 14.7조원)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민연금은 약 5억 유로 투자 검토. 다른 기관들은 500~1000억원 규모로 투자 검토. 운용자산 규모가 306억유로인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4개 대형펀드에서 북미와 유럽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며, 연간 15% 수준의 IRR 기록. KVG 3호펀드 설정하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 계획
2023년 6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KIC,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창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 써모피셔사이언티픽, 토탈에너지, 메타, 엑손모빌, 알파벳의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
2023년 11월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리그파워 주식 169만 7992주를 전량 3분기에 처분. 3분기 엔비디아와 알파벳 주식은 추가 매입
2024년 1월	사모대출(Private Debt)을 별도 자산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벤치마크는 모닝스타 글로벌 레버리지 대출 지수(Morningstar Global Leveraged Loan Index)를 활용.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무원연금

시기	이슈
2023년 6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바이아웃·그로스 위탁운용사로 아풀로, EQT 파트너스, 워버그핀커스를 선정. 선정된 운용사들은 각각 4000만 달러(약 500억원)씩 총 1억20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투자하게 됨. 아풀로글로벌과 워버그핀커스에 각각 북미·바이아웃, 북미·그로스 섹터, EQT파트너스는 유럽·바이아웃 섹터. 바이아웃 펀드는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 자산을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펀드. 그로스 펀드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를 통해 매입한 다음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엑시트(투자 회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KIC,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7월부터 위탁운용 국내주식까지도 전액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종목에만 투자. 기존에는 공무원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주식만 ESG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위탁 운용을 맡기는 주식까지도 ESG를 100%로 적용하기로 한 것.
2023년 8월	총 7000만달러(약 920억원) 규모의 글로벌 부동산 대출 펀드 출자 사업에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탈 등 선정. 출자사업의 투자영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또는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한 담보부 채권이다. 실물 부동산 선순위 대출에 주로 투자하게 되며,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지역에 80% 이상을 투자.
	공무원연금은 지난 6월 위탁 운용 맡겼던 900억원대 규모 채권자금을 전액 회수. 향후 국내채권 전액을 직접 운용하며, 올해 하반기 4%대 금리를 지닌 공사채, 특은채, AA급 이상 회사채를 관심 가지고 담을 계획
2023년 9월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한 연차별 계획인 'GEPS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단계적으로 2030년 50%, 2040년 75%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구상.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교체, 그린 리모델링 도입, REC 구매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27년간 총 1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2023년 11월	백주현 CIO는 채권·주식·대체 등 자산군별 1:1:1 투자 전략, 해외주식의 ETF를 활용한 직접운용,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힘. 국내주식 투자는 '분산투자' 원칙이 담긴 '핵심 위성(Core-Satellite) 전략'으로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코어(핵심)' ETF와 함께 개별종목, 섹터, 테마 등 '새틀라이트(위성)' ETF를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행정공제회

시기	이슈
2023년 4월	'회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이지스자산 선정. 회관은 연면적 1만명 이상의 업무시설로, 서울역 일대와 여의도, 종로 등을 입지로 검토하고 있음. 신규회관 건설시 3000평 정도는 행정공제회가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수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함.
2023년 6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 DS자산운용을 최종 선정. ESG형에서는 라이프자산운용과 DS자산운용, 액티브 섹터형 헬스케어 부문과 테크 부문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정
2023년 8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1300억원을 투자. 담보인정비율(LTV) 50% 초반의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연환산내부수익률(IRR)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신한 프린시플 펀드는 BBB+ 이하 등급의 CMBS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면서 위험도를 낮추려 함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노르웨이 국부펀드

시기	이슈
2023년 4월	미얀마 군부와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GAIL India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의 슈웨(Shwe)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2023년 6월	2021년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SSE)와 투자 관련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용 성과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 시행 Power Construction Corp of China를 멸종 위기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환경 파괴를 이유로, Petrofac는 부패와 금융범죄를 이유로 투자대상에서 제외. 석유·가스분야 EPC기업 영국 페트로팩은 부패 문제로 관찰 대상에 올림
2023년 7월	AXA France와 2011년 구입한 Memphis 지분 매각.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50%의 지분을 6500만유로에 LF Grand Paris·Epargne Fonciere ·EDF SA에 매각 중국 상하이 사무실 폐쇄 절차에 착수. 2022년 말 850여개 중국 기업의 주식 약 420억 달러(56조7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 투자는 향후 싱가포르의 아시아 허브에서 관리
2023년 10월	2018년 심각한 환경 파괴 위험과 노동자 인권 문제로 투자 배제대상이 되었던 Thoresen Thai Agencies를 투자배제 리스트에서 제외. 친환경 선박 폐선 정책을 개정한 현대글로비스는 관찰 대상에서 제외
2023년 11월	BXP와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인근의 생명공학센터의 지분 45%를 아스트라제네카와 Broad institute로부터 매수. 전체 계약 규모는 7.5억러이며, 개발 종료 이후 가치는 16.6억달러 추정. 2007년 핵무기 생산 문제로 투자배제 대상에 올랐던 Serco Group을 투자배제 리스트에서 제외.
	비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재무부에 건의
2023년 12월	사하라 사막 앞바다 석유 탐사를 이유로 Delek Group을 투자 배제 리스트에 포함. 전쟁과 인권 침해로 KDDI와 Sumitomo를 3년간 관찰 대상에 올림. 2020년 부패 혐의 등으로 투자배제 대상 리스트에 오른 PetroChina를 배제대상에서 제외. Shell PLC 와 Eni SpA는 환경 파괴 문제로 2013년 관찰 대상에 올랐으며, 2년을 추가로 관찰 하기로 결정
2024년 1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위치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사업의 지분 49%를 Iberdola로부터 6.3억유로에 매입. 지분 51%는 Iberdola가 소유하며, 운영도 맡게 됨. 해당 발전 사업은 2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2개의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음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IC

시기	이슈
2023년 4월	Pagaya Technologies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GIC는 기존 자금 조달 계약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래 5년 기간에 추가로 3년 더 연장하고, 클래스A 주식 지분을 9%로 확대. Pagaya Technologies는 PAYAGA는 이스라엘의 Financial Tech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용분석을 하고 있음
	Neoenergia로부터 브라질의 8개의 송전 시설의 지분 50%를 12억 브라질 헤알화에 매입
	Blackstone으로부터 8억달러에 일본의 물류시설 구매. 물류시설은 준공 기간이 5년 이하인 6개의 물류창고
2023년 5월	유럽의 전기 기관차 리스 회사인 Railpool Group의 지분 27%를 Palladio Partners로부터 인수. 이번 거래로 GIC는 Railpool Group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 Railpool은 2008년에 설립되어 전기 기관차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rookfield India REIT(BIRET)와 인도의 대규모 상업용 시설을 인수. 인수 자산에는 뭄바이의 브룩필드 다운타운 포와이와 Candor TechSpace가 포함되며, 기업가치는 약 14억달러
	의료용 가스 생산 업체인 Messer가 합작투자회사 Messer industries의 단독 소유주가 됨. Messer는 GIC를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기로 하였으며, 이전 투자자인 CVC와의 협력은 종료하게 됨
2023년 6월	글로벌 클린 에너지 기업 TagEnergy는 5.7억달러의 그린 본드를 발행하고,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GIC가 투자하기로 함. TagEnergy는 2019년 설립되었으며, 호주와 영국에서 풍력사업을 하고 있음.
	Asian Institute of Digital Finance (AIDF)와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박사 인재 양성 사업을 하기로 함
	부동산 운용사 Centerbridge Partners와 INDUS Realty Trust의 지분을 아부다비투자청의 자회사로부터 8.7억달러에 인수.
2023년 7월	경기도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경찰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자도 참여. 총 투자 규모는 9000억원이며, 준공 시점은 2026
	Genus Power & Infrastructures와 조인트 벤처 설립. GIC는 지분 74%, Genus는 26%를 보유. 초기 투자금액은 20억달러. Genus는 인도에서 스마트 계량 사업을 진행
	일본 나고야의 물류시설을 Daiwa House Industry로부터 인수.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IC

시기	이슈
2023년 8월	Barzel Properties와 함께 Carrefour Brazil Group과 세일-리스백 계약을 통해 브라질의 5개의 유통 센터와 4개의 소매점 인수
2023년 9월	H2 Green Steel은 Just Climate·Altor·GIC·Hy24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15억유로 자금 조달. 투자자금은 스웨덴 보덴에 위치한 H2 Green Steel의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에 투입
2023년 10월	남유럽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HIP의 지분 35% 인수. 블랙스톤의 펀드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펀드에 GIC가 투자. HIP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 72개의 호텔 보유
2023년 12월	일본 부동산 개발업체 Daiwa House Industry가 개발한 물류시설 2곳을 인수. 2021년과 2023년에 완공된 물류시설은 물류 허브에 위치 사모펀드 회사 Cinven이 보유한 보험 중개 회사 Miller의 주식 인수. 인도의 애그테크를 접목한 플랫폼 기업 Vegrow에 투자. Vegrow는 2만명 이상의 농부의 100개 도시에 위치한 도매업체의 데이터로 공급과 수요를 집계하여 효율적인 공급망 제공. 투자 규모는 4600만 달러이며, 공급망 확대에 투자금 쓰여질 예정
2024년 1월	스마트 모빌리티 스쿨버스 기업인 Zum의 시리즈 E에 참여. 시리즈E의 투자 규모는 1.4억달러이며, GIC와 Climate Investment, Sequoia 및 SoftBank Vision Fund 2 등 기존 투자자도 참여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PPIB

시기	이슈
2023년 6월	자회사 CPP Investment Board Europe을 통해 FCC Servicios Medio Ambiente Holding, SAU의 지분 25%를 9.7억달러에 인수. FCC Servicios Medio Ambiente Holding은 Fomento de Construcciones y Contratas, S.A.(“FCC”)의 환경 서비스 파트로 영국, 이베리아반도, 중부 유럽의 폐기물 관리 를 하고 있음. 재활용과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Viterra와 농업, 상품 및 식품 회사인 Bunge(NYSE:BG) 간의 합병 지지. CPPIB는 합병 회사의 지분 12%와 8억달러를 받게 됨. Bunge는 유지종자 가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을 하고 있음. CPPIB 이외에 Glencore와 British Columbia Investment 가 주요 주주
	Silver Lake와 여론조사 기업인 Qualtrics의 지분 인수.
2023년 7월	수소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Power2X와 파트너십 체결하고, CPPIB는 1.3억유로 투자
2023년 8월	Mombak Gestora de Recursos가 관리하는 아마존 조림기금에 투자. Mombak은 벤처 지원을 받는 탄소 제거 스타트업 투자 관리자로 아마존 재조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PPIB는 최대 3천만달러 투자 예정
2023년 9월	Northleaf Capital Partners와 투자 파트너십 연장. CPPIB는 Northleaf Capital I이 관리하는 펀드에 2억캐나다달러는 투자하였으며, 총 펀드 규모는 24억캐나다달러. 펀드는 중소규모 바이아웃과 그로쓰 스타일
2023년 11월	자회사 CPPIB Renewables Europe는 Enbridge Inc.의 자회사와 독일 해상 풍력 발전소 두 곳의 지분 24.5%를 매각. 풍력 발전 단지는 독일 북해 연안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운영 시작.
	북미 및 유럽 매입 펀드에 대한 20개의 파트너십 펀드 지분을 Ardian에 1.6억달러에 매각.
2023년 12월	CPPIB의 자회사인 CPPIB Credit Investments III 는 Blackstone Real Estate Debt Strategies, Blackstone Real Estate Income Trust와 함께 협작 투자를 체결하고 168억 달러의 선순위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의 지분 20%를 12억 달러에 인수.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는 뉴욕에 위치한 사무실과 소매점 2,600개의 대출로 구성
	Octopus Energy Group(Octopus)에 3억 파운드(C\$5억 1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 Octopus는 청정 에너지 서비스 개발을 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자회사 CPP Investment Board Europe은 유럽의 주요 업무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Visma의 지분 매각. Visma의 지분을 약 2% 보유하였으며, 순수익을 7억 캐나다 달러

Temasek

시기	이슈
2023년 5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알고리즘 화폐 시스템 개발업체 Array에 1000만달러 투자.
	자율주행시스템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위한 안전 중심 검증 및 검증(V&V)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레텔릭스(Foretellix)는 시리즈 C에 85만달러 조달. 시리즈C에 테마섹도 참여
2023년 6월	4억 싱가포르 달러(약 2억 9500만 달러)에 싱가포르 항공(SQ, 싱가포르 창이) 주식 1.85% 매각. 6월말 기준 테마섹은 싱가포르항공의 지분 53.57% 보유
2024년 1월	교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LXP'를 서비스하는 한국의 엘리스그룹에 자회사 버텍스 글로스가 시리즈C에 투자. 시리즈 C에는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참여
	인도 상장 PB 핀테크(PB Fintech)의 지분 5.4%를 24억2500만 루피에 매각
	MHE(Manipal Health Enterprises) 지분 8%를 매각

자료: 언론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상반기

기관투자자 투자트렌드